

# 2013. 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3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12.23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명수, 김경숙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7	-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10	1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 건	11월
교양	'시사플러스' 내레이션 적극 활용 아이템 사례 다른 사례와 비교분석 강화	'시사플러스' 내레이션 프로그램 활용 아이템 사례 다른 사례와 비교분석 강화	11월
교양	황해를 비롯한 특집다큐 작품의 우 수성위해 계속 매진	특집다큐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인력 확충, 노력과 비용 투자	11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황해' 교육자료 활 용 기대	특집 다큐멘터리 '황해' DVD 교육자 료로 배포	11월
기타	웹 모바일에서 다시보기 안되는 프 로그램 있어 시정조치 요구	웹모바일에서 다시보기 오류된 부분 시정조치하여 원활하게 작동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특집프로그램 「또 하나의 한류미지의 개척자 4부」(12/5)를 시청하였다. 대전 MBC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식품 한류를 일으킨 이마테오 KMT 대표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말레이시아에 한국 음식을 진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마테오 대표는 배움의 자세로 결국 한국 음식의 진출을 이루어 냈다.</p> <p>본 방송에서는 이마테오 대표의 하루 일과를 따라 인터뷰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에 한국 식품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마테오 대표의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KMT의 직원들과 현지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을 이루게 된 전략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틸틈이 첨가된 내레이션과 적절하게 활용된 다이어그램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식품 한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주변 국가와의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주었다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로 타국의 식품진출이 어려운 나라이다. KMT 이마테오 대표는 맨손에서 시작해서 한국식품의 말레이시아 진출에 교두보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한국식품의 할랄 인증에 큰 역할을 담당해 식품한류의 선봉에 서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외제작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예산과 해외체류기간의 문제 등으로 대형프로모션과 현지의 반응을 화면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식품 한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정리된 걸 찾을 수 없었는데, 다음 제작시에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힘쓰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 「우라늄 공포! 상소동 광산개발 시도 논란」(12/13)편을 보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방사능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국내외 환경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 상소동에서 역시 우라늄 광산 시료채취 문제로 인해 우라늄 개발 기업과 지자체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시사 플러스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p> <p>우라늄 개발 사업 시행 시 발생하게 될 대전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환경 영향을 지역민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해 주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p>	<p>상소동의 우라늄 광산개발 논란은 지역민에게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대전 한전원자력연료 증설 추진 등으로 인해 지역민에게 방사능의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큰 이슈여서 다루었다. 전문가의 인터뷰,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시청자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라늄을 시추 탐사한 외국계 회사의 인터뷰를 제작진이 시도했으나 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p> <p>이 사안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다. 특히 우라늄 개발 사업을 제한하고, 우라늄 채광으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 해외 사례를 통해 시민 활동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만 우라늄 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주장과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 보다는 우라늄 개발을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자들의 진행이 프로그램 초반에 보도 내용에 대한 방향 미리 알려주는 방안으로 활용된다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덕성).</p>	<p>서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취재내용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방안은 적극 수용 하겠다</p>	
교양	<p>허참의 토크&amp;조이 「국민 애완견 상근이 아빠 이웅중 교수」 편(12/21)을 모니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만이 넘었으며, 그만큼 애견시장 역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번 허참의 토크&amp;조이에서는 동물 행동 교정 훈련사 이웅중 교수가 나와 반려동물의 훈련방법과 조언을 통해 '반려동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본편에서는 상근이 훈련사로 더욱 유명해진 이웅중 교수가 반려동물 상근이와 함께 출연하여 방청객의 반응을 크게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상근이가 지쳐 보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이웅중 교수의 재치와 MC들의 말솜씨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어서 그가 훈련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반려견, 이것만은 꼭 알고 키우자' 는 주제로 반려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다만 출연자의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배경음이 많이 사용되어 설명 내용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배경음은 자료화면을 제시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면 좀 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모 예능 프로에서 상근이 아빠로 유명한 이교수를 초대했다. 녹화 날 상근이가 지친 모습을 보인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상근이가 충분히 익숙해 질 때까지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배경음의 사용은 피하도록 바로 조치했다.</p>	편성 수용
보도	<p>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저녁 8시 뉴스데스크를 집중 모니터 해보았다. 뉴스</p>	<p>내포신도시 출범 이후에 충남도 뉴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부</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아이템을 지역별로 정리해보니 대전지역과 세종시 관련 아이템이 많고 충청남도 관련 뉴스는 양도 적었고 취급방법 또한 약했다. 충남도 문제는 토막뉴스나 사건위주의 짧은 뉴스로 취급하고 있다. 충남도 관련 뉴스를 확대하고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심층취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한찬희).</p>	<p>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p>	
교양	<p>특집 다큐멘터리 '황해'를 감명 깊게 보았다. 내러티브, 화려한 영상, 심도 있는 주제 분석 등 공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아쉬운 점을 2가지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황해라는 거시적 주제를 끌고 갈 때는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황해가 중국 산업화의 악영향으로 인해 오염의 정도가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서술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상하는 새 무리를 촬영할 때 보통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사체의 흔들림 없는 포착이 중요한데 여러 장면에서 흔들림 있는 영상을 내보냈다. 시청하는데 흐름을 끊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김명주).</p>	<p>첫째, 최초 중국 촬영은 철새도래 시기에 맞춰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6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중국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을철 1회에 걸쳐 중국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의 제약이 있었고, 폐쇄적인 중국 사회의 특성상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취재와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200여 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카메라의 작은 진동에도 화면상의 흔들림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경우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아 삼각대로 카메라를 튼튼하게 받쳐도 바람의 영향으로 화면이 흔들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금년 보도 프로그램에서 '패자부활전'이라는 코너를 기획하여 우리사회에서 낙심한 그러나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조명해 보겠노라고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정작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취급 안했다(김명주).</p>	<p>새해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다루는 관련 뉴스를 준비 중이다.</p>	<p>보도 의견참고</p>
보도	<p>시사광장에서 대덕특구 40년(12/8), 정부 세종청사시대(12/15)를 다루었다. 2개의 연속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대덕특구와 대전시민과의 융합, 세종시공무원과 지역민과의 융합을 방송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공무원과 과학단지 연구원들의 관심사는 다를지라도 해당지역민들과 함께 호흡</p>	<p>과학문화 확산 등 대덕특구와 대전, 그리고 국토의 중핵도시 세종을 아우를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공감대 찾기에 주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이들이 일찍 정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길 바란다(장동환).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우라늄공포, 상소동 광산 개발 시도 논란'(12/13)이 방영되었다. 보통 아이টে을 다룰 때 일이 벌어진 이후 사후조치로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이번 소재는 문제가 되기 전 사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신선하게 다가온다.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공론화시키는 일은 칭찬받을만하다. 해당 프로그램을 1명의 PD가 취재, 진행을 이끌다보니 전체적으로 지루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점은 아쉽게 남는다(송인덕).	칭찬에 감사하다. 우라늄 공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전 핵연료공장 증설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민이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 같다. 다소 지루한 인상을 준 것은 제작진의 인력부족에 기인한다. 여러 사정상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있으나 보다 좋은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수용
보도	뉴스 제작 시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 불편이 수반되는 것은 팩트이다. 팩트 이면에 왜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사정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례는 대학가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에서 읽을 수 있는데 대학생들의 생각도 뉴스에서 제대로 다뤄야한다고 본다. 단지 사태전개에서 나타나는 팩트를 나열하는 것만이 뉴스제작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팩트 이면에 깔려 있는 맥락과 흐름을 뉴스에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송인덕).	보다 심층성 있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세종청사에 내려온 공무원들을 보면 이들이 온전하게 세종시에 정착을 하고 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 일부분만 세종시에 거주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퇴근 후 뿔뿔이 타 도시로 가는 듯싶다. 공무원들이 뿌리를 내리고 빨리 세종시에 정착을 해야 세종시 발전을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에 관련된 입체적 기획보도를 주문한다(송인덕).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심층 뉴스를 보다 강화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세종시 특별법안 처리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광특회계'라는 용어가 나온다.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주지	보도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서 처음 듣기에는 낯설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막처리나 멘트로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유덕순).	했고, 자막처리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어휘는 풀어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하였다.	
보도	'스미싱 사기단 검거' 뉴스를 주부 입장에서 잘 보았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피해예방 관점에서 자세히 보았다.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럴 때는 자막처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몰입도가 더욱 강해졌으리라고 본다(유덕순).	피해 유형 뿐만 아니라 예방법까지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훈훈한 미담과 따뜻한 소식이 뉴스소재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수능 전국수석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이런 소식도 집중적으로 취재 방송되었으면 한다(유덕순).	교육계 뉴스를 강화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내년은 창사 50주년이다. 50이면 '지천명'이라 했다. 대전MBC의 책임이 막중하다. 시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제작자의 고집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내년에 더욱 기대를 해본다(김영광).	창사 50주년을 맞아 대전MBC에서는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기획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인류문명사와 휴과의 관계를 밝혀보는 글로벌 대형 다큐멘터리 '휴'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남의 문화와 자연의 원형,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 충청'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위안소를 찾았던 일본 병사의 자기고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한 3.1절특집 '아버지의 일기장'을 제작중에 있고, '인삼전쟁', '단체 신체호' 등의 다큐멘터리도 인력과 제작비 등 역량이 되는 한 제작, 방송하려고 기획중이다.	편성 수용
교양	허참의 '토크앤 조이'를 보다 보면 가끔 자료 화면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경우는 화면구성	자료화면은 출연자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주제와 맞게 촬영하여 소개한다. 토크 위주로 진	편성 반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이 산만하여 집중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화면은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들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나친 화면은 오히려 주의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박희원).</p>	<p>행을 하다보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자료화면 사용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자료화면이 많다고는 보지 않는다.</p>	